

『古事記』의 女鳥王이야기의 후일담에 관한 一考察

박 미 경*

(e-mail : bbmkpark@hanmail.net)

目次

1. 들어가는 말
2. 문제의 소재와 연구사
3. 『古事記』 중·하권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古事記』 하권의 모두를 장식하는 다투쿠(仁徳)천황은 부역을 면제하는 인정(仁政)으로 성제(聖帝)라 일컬어졌으며 『古事記』의 다투쿠 천황에 관련된 기록 역시 모든 지배영역에 천황의 강대한 덕을 바탕으로 한 선정을 베풀어 천하의 안녕과 궁정의 질서 유지가 훌륭히 이루어졌음을 역설해 주고 있다.

또 『古事記』는 이와 같이 다투쿠천황의 성덕(聖德)에 얽힌 일화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천황과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황후 이와노히메(石之日売)의 질투로 인해 천황이 마음에 두고 있던 구로히메(黒日売), 야타노와카이라츠메(八田若郎女)를 궁으로 불러들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메도리노오오키미(女鳥王)는 다투쿠의 구혼을 거절하고 하야부사와케노미코(速総別王)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古事記』 『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는 메도리노오오키미(『日本書紀』는 雌鳥皇女) 이야기는 두 문헌이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다. 『古事記』에 의하면 다투쿠천황은 하야부사

를 중매로 세워 메도리에게 청혼을 하는데 메도리는 그 구혼을 거절하고 오히려 중매자 하야부사와 결혼한다. 메도리는 남편 하야부사를 부추겨 다투쿠천황을 살해하려다 발각되어 결국 두 사람 모두 살해당하고 만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즉 『古事記』의 메도리노오오키미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왕권에 맞서서 대항하는 특이한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 때문에 종래의 연구는 『古事記』의 메도리노오오키미가 『日本書紀』와 비교해 얼마나 특이한 인물이며 또 『古事記』가 메도리노오오키미와 같이 특이한 인물조형을 하게 된 요인을 『古事記』 편찬시의 구상 등과 관련지어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²⁾.

그러나 본고에서는 종래에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반란전승으로서의 메도리노오오키미 이야기의 이채로움은 차치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소 간과되어 온 감이 없지 않은 그 후일담에 주목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日本書紀』의 기록과는 달리 『古事記』의 메도리노오오키미 이야기에 이어지는 후일담에는 죽음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전승 내용의 차이를 비교 검토하고 이를 통해 『古事記』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古事記』 중에 죽음이 어떻게 그려져 있으며 그것이 「記紀」로서가 아니라 『古事記』라는 독자적인 작품세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문제의 소재와 연구사

天皇、此の歌を聞きて、即ち軍を興し、殺さむと欲ひき。〈中略〉
爾くして、速総別王・女鳥王、共に逃げ退きて、倉橋山に騰りき。〈中略〉
故、其地より逃げ亡せて、宇陀の蘇迹に到りし時に、御軍、追ひ到りて殺しき。其の將軍、山部大楯連、其の女鳥王の御手に纏ける玉鈕を取りて、己が妻に与へき。
此の時の後に、將に豊樂を為むとする時に、氏々の女等、皆朝参しき。爾くして、大楯連が妻、其の王の玉鈕を以て、己が手に纏きて、参る赴きき。是に大后石之日売命、自ら大御酒の柏を取りて、諸の氏々の女等に賜ひき。爾くして、大后、其の玉鈕を見知りて、御酒の柏賜はずして、乃引き退けき。其の夫大楯連を召し出して、詔はく、「其の王等、礼無きに因りて、退け賜ひつ。是は、異しき事無けくのみ。夫の奴や、己が君の御手に纏ける玉鈕を、膚も爛けきに剥ぎ持ち来て、即ち己が妻に与へつ」とのりたまひて、乃ち死刑を給ひき。(『古事記』 下卷・仁徳天皇・速総別王と女鳥王)³⁾

2) 荻原千鶴, 「女鳥王—説話の発展とその周辺—」, 『国語と国文学』 59卷 11号, 1982.11, 「女鳥王物語と春日氏后妃伝承の定着」, 『日本古代の政治と文化』 吉川弘文館 1987.2, (『日本古代の神話と文学』, 稿書房, 1998.1에 재수록), 阿部誠, 「皇后の物語と王権—古事記・女鳥王の造形尾をめぐって—」 『古事記年報』 第34号, 1992.1 등

* 대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메도리노오오키미와 하야부사와케노미코 이야기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위의 인용은 『古事記』가 메도리노오오키미 사후에 후일담으로 전하는 메도리노오오키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한편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전승은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위의 인용부에 해당하는 『日本書紀』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時に雄鮒等に、皇女玉を探りて、裳の中より得つ。乃ち二の屍を以て、廬杵河の邊に埋みて、復命す。皇后、雄鮒等に問はしめて曰はく、「若し皇女の玉を見きや」とのたまふ。対へて言さく、「見ず」とまうす。

是歳、新嘗の月に當りて、宴会の日を以て、酒を内外命婦等に賜ふ。是に近江山君稚守山が妻と采女磐坂媛と、二の女の手に、良き珠纏けること有り。皇后、其の珠を見ずに、既に雌鳥皇女の珠に似たり。則ち疑ひて、有司に命して其の玉を得し由を推へ問はしめたまふ。対へて言さく、「佐伯値阿俄能胡が妻の玉なり」とまうす。仍りて阿俄能胡を推へ鞠ふ。対へて曰さく、「皇女を殺し日に、探りて取りき」とまをす。即ち將に阿俄能胡を殺さむとす。是に阿俄能胡、乃ち己が私の地を献りて、死贖はむと請す。故、其の地を納めて死罪を赦す。是を以て、其の地を号けて玉代と曰ふ。(『日本書紀』・仁徳天皇四十年二月・是歳条) 4)

먼저 등장인물과 옥팔찌의 입수 경로, 황후의 교체 유무 등 『古事記』와

『日本書紀』에서는 여러 가지 차이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싶은 사항은 옥팔찌를 훔친 자를 니이나메사이(新嘗祭)의 도요노아카리에서 발견한 황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즉 『古事記』에서는 이와노히메로 되어 있는 반면에 『日本書紀』에서는 야타노히메미코(『古事記』에서는 야타노와카이라즈메)로 되어 있는 점이다. 또 메도리노오오키미의 옥팔찌를 훔친 자에 대한 각각의 황후의 태도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요컨대 『古事記』에서는 메도리와는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와노히메가 황후로 등장하여 메도리의 팔찌를 훔친 오오다테노무라지에게 그 책임을 물어 단호한 태도로 사형을 내린다. 반면에 『日本書紀』에서는 이와는 달리 새로 황후가 된 야타노히메미코가 등장한다. 『日本書紀』는 메도리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친언니 야타노히메미코가 일단 사형을 내리지만 사유지를 바칠 테니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는 아가노코(阿俄能胡)의 청을 받아들여 그 토지를 받는 대신 죽을죄를 면하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와 관련된 지명 기원설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

질투하는 황후로 유명한 이와노히메 전승에 이어지는 이 메도리노오오키미와 하야부사와케노미코 이야기는 황권에 대한 반역 이야기로 독립적인 하나의 전승 부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천황의 구혼을 거부함에서 비롯된 하야부사와케노미코와 메도리의 반역 이야기는 반역 전승⁵⁾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반역의 주인공인 두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메도리노오오키미와 관련된 후일담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종래에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야타노와카이라즈메의 입궐을 황후 이와노히메가 심하게 질투하는 이야기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개 역시 두 문헌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日本書紀』에서는 황후 이와노히메는 야타노히메미코의 입궐을 끝까지 거부하다 닌토쿠 35년 6월에 츠츠키노미야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한다. 그리고 37년 11월에는 황후를 乃羅山에 매장하였으며, 이듬해 38년 정월에는 야타노히메미코를 새로운 황후로 맞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용부의 이야기는 야타노히메미코의 주체로 전개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반해 『古事記』에서는 야타노와카이라즈메의 입궐을 둘러싸고 닌토쿠와 그 면회를 거절하는 이와노히메 사이에 오간 와카를 실고 있을 뿐 이와노

5) 『古事記』의 반역전승에 대한 논의에는 森昌文(1982.3) 「神武記「タギシミ反乱譚」考」 『古代研究』 14, 阿部誠(1991.1) 「古事記・墨江中王反乱伝承について—その反正天皇即位前『記』としての構想—」 『古事記年報』 33, 中尾瑞樹(1998.1) 「『古事記』反乱物語試論—神武記「省芸志美美命反乱」条および崇神記「建波迹安王反乱」条をめぐって」 『解釈』 44-7 通巻 520, 馬場小百合(2008.10) 「『古事記』大山守命の反乱物語と宇遲能和紀郎子」 『國語と国文学』 85(10) (通号 1019) 등이 있다.

3) 천황은 그 노래를 전해 듣고 즉각 군대를 모아 (메도리노오오키미와 하야부사와케노미코를) 죽이려 하였다. <중략> 그러자 하야부사와케노미코와 메도리노오오키미는 함께 달아나 쿠라하시노야마에 올랐다. <중략> 그리고 도망쳐 우다의 소년에 도착했을 때 천황의 군사가 추격해 와 두 사람을 죽였다. 그 군사를 가운데 장군 야마베노오오다테노무라지는 메도리노오오키미가 손에 차고 있던 옥팔찌를 벗겨다가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다.

그 후 궁중에서 연회가 열릴 때에 각 씨족의 여자들이 모두 입궐하였다. 이 때 오오다테노무라지의 아내는 메도리노오오키미의 옥팔찌를 끼고 입궐하였다. 그런데 황후 이와노히메미코토는 친히 술잔을 들어 각 씨족의 여자들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러나 황후는 그 옥팔찌를 알고 있어서 오오다테노무라지의 아내에게는 술을 따르는 술잔을 주지 않고 즉시 퇴장시켰다. 그 남편 오오다테노무라지를 불러내어 “메도리노오오키미는 불경해서 천황이 이를 물리치셨다. 이는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란 놈이 제 주인이 손에 끼었던 옥팔찌를 죽여서 체온도 가시기 전에 벗겨다 제 아내에게 주다니”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사형에 처하셨다.

4) 오후나들은 히메미코의 옥을 치마 속에서 찾아내었다. 두 오오키미의 시신을 이호키가와 근처에 묻고 복명하였다. 황후는 오후나들에게 “히메미코의 옥을 보았는가?”라고 물었다. 대답하여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해, 니이나메가 있던 달에 연회가 있었을 때 내외명부들에게 술을 주었다. 오우미의 야마노키미와카모리야마의 아내와 우네메 이와사카히메 두 사람이 손에 좋은 구슬을 차고 있었다. 황후가 그 옥을 보니 메도리노히메미코의 옥과 비슷하였다. 의심하여 유사에게 명하여 그 옥을 얻은 연유를 자세히 꾸짖어 물었다. 대답하여 “사에키노아카야아가노코의 아내의 옥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아가노코를 심문하였다. 대답하여 “히메미코를 주살하던 날 찾아내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아가노코를 죽이려고 하였다. 아가노코가 자신의 땅을 바쳐 죽을죄를 속하려고 청하였다. 이에 그 땅을 몰수하여 죽을죄를 용서하였다. 이 때문에 그 땅을 다마테라고 한다.

히메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다만 닌토쿠와 야타노와카이라츠메가 주고받은 와카를 통해 야타노와카이라츠메 스스로가 입궐을 단념했음을 시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日本書紀』에서는 하야부사와케노미코와 메도리노오오키미 이야기가 전개될 당시에는 이미 이와노히메는 죽고 새로이 황후의 자리를 이은 야타노히메미코가 인용부와 같이 살해당한 메도리노오오키미의 유해에서 다마쿠시로라는 옥팔치(『日本書紀』에서는 足玉手玉)가 도난당하는 후일담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이 사건의 주체가 『古事記』에서는 황후 이와노히메인데 반해 『日本書紀』에서는 야타노히메미코로 되어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이와노히메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두 문헌의 전승 중 어느 쪽을 원형으로 보느냐를 문제 삼아 다양한 전개를 보여 왔다⁶⁾. 역시 『古事記』의 문맥상 인용부의 주체는 이와노히메이며 사형을 내린 것도 이와노히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와노히메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메도리노오오키미이야기의 후일담으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에 있어서 한쪽은 사형을 당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사형을 면하게 된다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헌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종래의 연구에서는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은 채 간과되어 왔으나 역시 주목할 만한 중요한 차이점으로 생각된다. 특히 『日本書紀』의 황후 야타노히메미코는 달아난 메도리와 하야부사와케를 뒤쫓아 주살하라는 천황에게 친히 “메도리노히메미코는 실로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죽일 때 히메미코의 몸을 드러내는 일은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아뢰어 천황으로부터 “히메미코가 가지고 있는 옥발찌와 옥팔찌를 뺏지 말라”는 명까지 얻어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뒤쫓아가 살해한 오후나들에게 황후 야타노히메미코는 메도리의 옥팔찌와 발찌를 보았는지를 확인까지 하고 있다. 더욱이 『日本書紀』의 황후 야타노히메미코는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친자매로서 자신의 동생인 메도리노오오키미에게 범한 무례한 행위에 대해 일단 사형을 명했다가 간단히 이를 철회하고 용서했다는 이야기의 전개는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떨칠 수 없다.

6) 吉井巖(1975.9) 『イワノヒメの物語』(『吉永登先生古希記念 上代文学論集』関西大学国文学会), 阿部寛子(1977.9) 『石之日売の物語一個の誕生』 『調布学園女子短期大学紀要』第10号, 荻原千鶴(1982.1) 『女鳥王—説話の発展とその周辺—』(『国語と国文学—上代文学の現在—』), 寺川真知夫(1988.1) 『石之日売の悲しみ』 『古事記年報』第31号, 阿部誠(1992.1) 『皇后の物語と王権—古事記・女鳥王の造形尾をめぐって—』 『古事記年報』第34号, 富士原伸弘(1992.3) 『古事記にみえる石之日売皇后像—八田若郎女との比較を中心に—』 『日本文学論究』51号 등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메도리노오오키미 이야기의 후일담에 보이는 이와 같은 차이 즉 죽음을 전하는 『古事記』와 죽음을 전하지 않는 『日本書紀』 간의 상이점에 주목하여 이 문제해결의 단초로 먼저 『古事記』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古事記』 중·하권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

주지하는 바와 같이 『古事記』는 상, 중, 하 세 권으로 되어 있으며 신과 천황, 그리고 천황 이외의 사람이 등장한다. 『古事記』는 이들 등장인물의 죽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진무(神武) 이후 『古事記』가 전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故、天皇の崩りまし後に、其の庶兄当芸志耳命、其の適后伊須気余理比売を娶りし時に、其の三はしらの弟を殺さむとして謀りし間に、其の御祖伊須気余理比売、患へ苦しびて、歌を以て其の御子等に知らしめき。〈中略〉是に、其の御子。聞き知りて驚きて、乃ち当芸志美々を殺さむと為し時に、神沼河耳命、其の兄神八井耳命に白しく、「なぬ汝命を兵を持ち入りて、当芸志美々命を殺せ」とまをしき。故、兵を持ち入りて、殺さむとせし時に、手足わななきて、殺すこと得ず。故爾くして、其の弟神沼河耳命、その兄の持てる兵を乞ひ取りて、入りて当芸志美々を殺しき。(神武天皇・当芸志美々命の反逆)⁷⁾

②是に山代の和訶羅河に到りし時に、其の建波迹安王、軍を興して待ち遮へき。各中に河を挟みて、対き立ちて相挑みき。〈中略〉爾くして、日子国夫攻命の乞ひて云ひしく、「其の廂の人、先づ忌矢を弾つべし」といひき。爾くして、其の建波迹安王、射れども、中つること得ず。是に、国夫攻命、矢を弾てば、即ち建波迹安王を射て、死にき。(崇神天皇・建波迹安王)⁸⁾

7) 그런데 천황이 붕어하신 후에 그 세 아들의 이복형 다기시미미노미코토는 천황의 황후 이스케요리히메를 얻었을 때에 그 세 동생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 어머니 이스케요리히메는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노래로 알렸다. 〈중략〉 그러자 그 아들이 노래를 듣고 음모를 눈치채고 놀라서 즉시 다기시미미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가무누나카와미미노미코토가 형 가무야이미미노미코토에게 아뢰길 “형님 무기를 들고 들어가 다기시미미를 죽이세요.”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가무야이미미노미코토는 무기를 들고 들어가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 때 손발이 떨려서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동생 가무누나카와미미노미코토는 그 형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받아서 앞으로 들어가서 다기시미미를 죽였다.

8) 야마시로의 와카라가와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 다케하니야스노미코는 군세를 모아서 기다려 가는 길을 막았다. 양자는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서고 있었다. 〈중략〉 히코쿠니부쿠노미코토가 상대에게 고하여 말하길 “그 쪽에서 먼저 개전의 화살을 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다케하니야스노오오키미가 활을 쏘았으나 명중시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쿠니부쿠노미코토가

- ③又、その后を問ひて曰ひしく、「汝が堅めたるみづの小佩は、誰か解かむ」といひき。答へて白しく、「且波比古多々須美智宇斯王の女、名は兄比売・弟比売、茲の二はしらの女王は、淨き公民ぞ。故使ふべし」とまをしき。然れども、遂に其の沙本比古王を殺しき。其のいろ妹も、亦従ひき。(垂仁天皇・沙本比古・沙本比売) 9)
- ④爾くて、其の熊曾建が白しく、「<中略>大倭国に、吾二人に益して、建き男は、坐しけり。是を以て、吾、御名を献らむ。今より以後は倭建御子と称ふべし」まをしき。是の事を白し詠るに、即ち熟瓜の如く振り析きて、殺しき。(景行天皇・倭建命) 10)
- ⑤天皇の答へて白さく、「高き地に登りて西の方を見れば、国土見えずして、唯に大き海のみ有り」とまをして、詐を為る神と謂ひて、御琴を押し退け、控かずして、黙し坐しき。爾くて、其の神、大きに忿りて詔ひしく、「凡そ、茲の天の下は、汝が知るべき国に非ず。汝は、一道に向かへ」とのりたまひき。是に、建内宿禰大臣が白しく、「恐し。我が天皇、猶其の大御琴をあそばせ」とまをしき。爾くて、稍く其の御琴を取り依せて、なまなまに控きて坐しき。故、未だ幾久もあらずして、御琴の音聞こえず。即ち火を挙げて見れば、既に崩りまし詠りぬ。(仲哀天皇・仲哀天皇の崩御) 11)
- ⑥是に、河の辺に伏し隠りし兵、彼廂此廂、一時共に興りて、矢刺して流しき。故、訶和羅之前に到りて沈み入りき。<中略>爾くて、其の骨を掛け出しし時に、弟王の歌ひて曰はく、(応神天皇・大山守命) 12)
- ⑦爾くて、大后、其の玉鈕を見知りて、御酒の粕を賜はずして、乃ち引き退けき。其の夫大盾連を召し出して詔はく、「其の王等、礼無きに因りて、退け賜ひつ。是は、異しき事無けくのみ。夫の奴や、己が君の御手に纏ける玉鈕を、膚も熨けきに剥ぎ持ち来

활을 쏘자 그대로 다케하니야스노오오키미를 맞추어 죽였다.

- 9) 또 천황은 그 황후에게 “당신이 매어 놓은 나의 윤기 있고 아름다운 아랫 끈은 누가 푸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황후는 그에 답하여 “다니하노히코타타스미치노우시노미코의 딸 이름은 에히메, 오토히메라는 두 여인은 충성스런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렇게 하여 왔던 것이나 결국에는 그 사호비코노오오키미를 죽였다. 그 여동생도 또한 오빠를 따랐다.
- 10) 그 구마스타케루가 아뢰길 “ <중략> 야마토노쿠니에는 우리 두 사람보다 훨씬 강한 남자가 계셨군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바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구마스타케루를) 잘 익은 참외를 자르듯이 베어 찢어 죽였다.
- 11) 천황이 대답하여 “높은 곳에 올라 사망을 보니 국토는 보이지 않고 그저 넓은 바다가 보일 뿐입니다.”라고 아뢰고 거짓말을 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문고를 밀쳐놓고 타지도 않고 잠차코 계셨다. 그러자 그 신은 매우 노하여 “에당초 이 천하는 내가 통치할 나라가 아니다. 너는 어딘가 한 구석을 향하고 있는 것이 어물런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다케시우치노스쿠네노오오미는 “황송한 일입니단만 천황님 역시 그 거문고를 타시지요.”라고 아뢰었다. 그래서 천황은 슬슬 그 거문고를 끌어 당겨 마지못해 타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자 또 얼마 되지 않아 거문고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 즉시 불을 높여 들고 보니 천황은 이미 붕어하신 후였다.
- 12) 그러자 강 근처에 숨어 있던 병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제히 나타나서 활에 화살을 메기고 쏘려는 자세를 보여서 형을 그대로 흘려 보냈다. 그래서 형은 가와라의 포구에 이르러 가라앉아 버렸다. <중략> 그 유체를 갈고리로 건졌을 때 동생이 노래하여 말하길

て、即ち己が妻に与へつ」とのりたまひて、乃ち死刑を給ひき。(仁徳天皇・速総別・女鳥王)

- ⑧是に、其のいろ弟、水齒別命、参み赴きて謁さしめき。爾くて、天皇の詔はしめしく、「吾は、汝命若し黒江中王と同じ心ならむかと疑へり。故、相言はじ」とのりたまはしめき。答えて白しく、「僕は、穢き邪しき心無し。亦、黒江中王と同じくあらず」とまをしき。亦、詔はしめしく、「然らば、今還り下りて、黒江中王を殺して、上り来。彼の時に、吾、必ず相言はむ」とのりたまはしめき。
故、即ち難波に還り下りて、黒江中王に近く習へたる隼人、名は曾婆訶理が答へて白しく、「命の隨に」とまをしき。爾くて、多たの祿を其の隼人に給ひて曰ひしく、「然らば、汝が王を殺せ」といひき。是に、曾婆訶理、窃かに己が王の厠に入るを伺ひて、矛を以て刺して殺しき。(履中天皇・黒江中王)¹³⁾
- ⑨故、曾婆訶理を率て、倭に上り幸す時に、大阪の山口に到りて、以為ひしく、「曾婆訶理は、吾が為に大き功有れども、既に己が君を殺しつること、是義ならず。然れども、其の功を賽いずは、信無しと謂ひつべし。既に其の信を行はば、還りて其の情に惶りむ。故、其の功を報ゆとも、其の正身を滅さむ」とおもひき。<中略>
爾くて、其の隼人に詔はく、「今日大臣と同じ蓋の酒を飲まむ」とのりたまひて、共に飲む時に面を隠す大鏡に、其の進む酒を盛りき。是に王子、先づ飲み、隼人後に飲みき。故、其の隼人が飲む時に、大鏡、面を覆ひき。爾くて、席の下に置ける剣を取り出して、其の隼人が頸を斬りて、乃ち明るる日に上り幸しき。(履中天皇・隼人の曾婆訶理) 14)
- ⑩根臣、即ち其の礼物の玉纒を盗み取りて、大日下王を讒して曰ひしく、「大日下王は、勅命を受けずして曰はく、『己が妹をや、等しき族の下席と為む』といひて、横刀の手上を取りて怒りつか」といひき。故、天皇、大きに怨みて、大日下王を殺して、其の王の嫡妻、長田大郎女を取り持ち来て、皇后と為き。(安康天皇・大日下王)¹⁵⁾

- 13) 그래서 미즈와케노미코토는 즉시 나니와로 돌아와서 스미노에노나카즈미코를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하야히토, 이름을 소바카리라고 하는 자를 속여서 “만일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른다면 나는 천황이 되어 너를 오오오미로 삼아 천하를 다스리겠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말하였다. 소바카리는 답하여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그러자 미와즈와케노미코토는 많은 물품을 그 하야히토에게 주시며 “그렇다면 내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죽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소바카리는 자기의 주군이 변소에 들어가는 것을 은밀히 노렸다가 창으로 찔러서 죽였다.
- 14) 소바카리를 데리고 야마토로 올라가실 때에 오사카의 신입구에 도착하여 미즈와케노미코토가 생각하길 “소바카리는 나를 위해서는 큰 공이 있으나 분명히 자기의 주군을 죽였다는 것은 이것은 신하로서의 충의에 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그 공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군으로서의 신의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 있다. 약속한대로 완전하게 그 신의를 실행하면 오히려 이번에는 내가 소바카리의 난폭한 성정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공을 보상하기는 하되 그 당사자는 죽여 버리자.” 라고 생각하였다. <중략> 그러자 미즈와케노미코토는 그 하야히토에게 “오늘은 오오오미와 같은 잔으로 술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같이 마실 때 얼굴이 가려질 만큼 큰 잔에 권하는 술을 따랐다. 그리고 왕자가 먼저 마시고, 하야히토는 그 뒤에 마셨다. 그런데 그 하야히토가 마실 때 큰 잔이 그 얼굴을 가렸다. 그러자 미즈와케노미코토는 자리 밑에 숨겨 두었던 칼을 꺼내 그 하야히토의 목을 베고 그 다음날에 야마토로 올라가셨다.

⑪爾くて、天皇、其の少き王の殿の下に遊べることを知らずして、大后に詔ひて言ひしく、「吾は、恒に思ふところ有り。何となれば、汝が子目弱王、人と成りたらむ時に、吾が其の父の王を殺ししことを知りなば、還りて邪しき心有らむと為るか」といひき。是に、其の殿の下に遊べる目弱王、此の言を聞き取りて、便ち窺かに天皇の御寝せるを伺ひ、其の傍の大刀を取りて乃ち其の天皇の頸を打ち斬りて、都夫良意富美が家に逃げ入りき。(安康天皇) 16)

⑫爾くて、大長谷王子は、当時童男なり。即ち此の事を聞いて、慷慨み怨み怒りて、乃ち其の兄、黒日子王の許に到りて、曰ひしく、「人、天皇を取りつ。那何にか為む」といひき。然れども、其の黒日子王、驚かずして、怠り緩へる心有り。是に、大長谷王、其の兄を罵りて言はく、「一つには天皇と為り、一つには兄弟と為るに、何か恃しき心も無くして、其の兄を殺すことを聞いて、驚かずして怠れる」といひて、即ち其の衿を握りて控き出して、刀を抜きて打ち殺しき。(安康天皇・黒日子) 17)

⑬亦、其の兄、白日子王に到りて、状を告ぐるごと、前の如し。緩へることも、亦、黒日子王子の如し。即ち其の衿を握りて引き率て来て、小治田に到りて、穴を掘りて、立て随ら埋みしかば、腰を埋む時に至りて、両つ目、走り抜けて、死にき。(安康天皇・白日子) 18)

⑭「……賤しき奴、意富美は、力を竭して戦ふとも、更に勝つべきこと無けむ。然れども、己を待みて陋しき家に入り坐せる王子は、死ぬとも棄てじ」と、如此白して、亦其の兵を取りて、還り入りて戦ひき。爾くて、力窮き矢尽きぬれば、其の王子に白しく、「僕は、手悉く傷ひつ。矢も、亦、尽きぬ。今は戦ふこと得ず。如何に」とまをしき。其の王子答えて詔ひしく、「然らば、更に為べきこと無し。今は吾を殺せ」とのりたまひき。

15) 네노오미는 즉시 그 예물인 다마카즈라를 가로채고 오오쿠사카노미코를 중상하여 “오오쿠사카노미코는 칙명을 받지 않고 내가 나의 동생을 동격인 자의 갈개로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칼의 손잡이를 잡으며 화를 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천황은 매우 노하여 오오쿠사카노미코를 죽이고 그 미코의 정처 나가타노오오이라즈메를 빼앗아 데려다 황후로 삼았다.

16) 그런데 천황은 이 어린 왕자가 건물 아래서 놀고 있는 것을 모르고 황후에게 말하길 “나는 늘 걱정이야. 당신 아들 마요와노미코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그 부왕을 죽인 것을 알면 이번에는 반대로 나를 배반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 이 때 건물 아래서 놀고 있던 마요와노미코는 이 말을 듣고 즉시 천황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슬쩍 노렸다가 그 옆에 있는 칼을 집어 그대로 천황의 목을 쳐 떨어뜨리고 쓰부라노오오미의 집으로 도망쳤다.

17) 오오하츠세노미코는 당시 아직 소년이었다. 그 일을 듣고 분하게 생각하고 노하여 그의 형 구로히코노미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천황이 살해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구로히코노미코는 놀라지도 않고 태연하며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오오하츠세노미코는 그 형을 비난하여 “한편으로는 천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자기 형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놀라지도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가”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목덜미를 잡아채어 칼을 뽑아 쳐죽였다.

18) 또 다른 형 시로히코노미코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전과 똑같이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 형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구로히코노미코와 마찬가지로였다. 당장에 그 목덜미를 잡아끌고 나와서 아스카의 오하라다에 가서 구멍이를 파고 그 안에 세워 놓고 묻었는데 허리까지 묻혔을 때 두 눈알이 튀어나와 죽고 말았다.

故、刀を以て其の王子を刺し殺して、乃ち己が頸うい切りて死にき。(安康天皇・目弱王) 19)

⑮爾くて、明るる旦に、未だ日も出でぬ時に、忍齒王、平らけき心を以て、御馬に乗り随ら、大長谷王子の御伴人に詔はく、「未だ寤めず坐す。早く白すべし。夜は、既に曙け訖りぬ。獨庭に幸すべし」とのりたまひて、乃ち馬を進めて出で行き。爾くて其の大長谷王の御所に侍る人等が白さく、「うたて物云ふ王子ぞ。故、憤むべし。亦、御身を堅むべし」とまをすに、即ち衣の中に甲を服、弓矢を取り佩きて、馬に乗りて出で行きて、儻忽の間に馬より往き双びて、矢を抜き其の忍齒王を射落して、乃ち亦、其の身を切り、馬楯に入れて、土と等しく埋みき。(安康天皇・市辺之忍齒王) 20)

⑯明るる旦の時に、意祁命・袁祁命二柱の議りて云はく、「凡そ、朝廷の人等は、旦は朝廷に参る赴き、昼は志毘が門に集へり。亦、今は志毘、必ず寝ねたらむ。亦、其の門に人無けむ。故、今に非ずは、謀るべきこと難けむ」といひて、即ち軍を興して志毘臣が家を囲みて、乃ち殺しき。(清寧天皇・志毘臣) 21)

⑰初め天皇の難に逢ひて逃げし時に、其の御糧を奪ひし猪甘の老人を求めき。是を求むること得て、喚し上げて、飛鳥河の河原に斬りて、皆其の族の膝を断ちき。(顕宗天皇・猪甘老人) 22)

19) “……신분이 천한 저같은 오오미는 힘을 다하여 싸워도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의지하여 천한 저의 집으로 들어오신 왕자는 죽어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뢰고 다시 무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 싸웠다. 그러다 힘이 다하고 화살도 다 떨어지자 마요와노미코에게 “저는 많은 부상을 입고, 또 화살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할까요.”라고 아뢰었다. 마요와노미코는 답하여 “그렇다면 더 이상 해야 할 일은 없다. 이제 나를 죽여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칼로 마요와노미코를 찔러 죽이고 즉시 자신의 목을 베어 죽였다.

20)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직 해도 뜨지 않았을 때 오시하노미코는 특별히 다른 날과 다른 마음으로 말을 타고 오오하츠세노미코의 임시궁으로 다가가 오오하츠세노미코 일행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느냐. 빨리 아뢰어라. 밤이 벌써 밝아 버렸다. 수렵장으로 나오시지요.”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말을 몰고 나가셨다. 이 말을 듣고 오오하츠세노미코 곁에서 수행하는 자들이 왕에게 “재수 없는 말을 하는 왕자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무장하세요.”라고 아뢰자, 오오하츠세노미코는 그 자리에서 의복 속에 감옷을 입고 활과 화살을 집어 몸에 차고 말을 타고 나가 금방 따라잡아 말을 나란히 하고 화살을 뽑아서 오시하노미코를 쏘아 떨어뜨리고 즉시 그 몸을 베어 말구유에 넣어서 지면과 같은 높이로 묻었다.

21) 다음날 아침 오케(意祁)노미코토와 오케(袁祁)노미코토 두 왕자는 상의하여 “모든 조정의 관인들은 오전에는 조정에 입권을 하고 오후에는 시비노오미의 집에 모여 있다. 그런데 아직 지금까지도 틀림없이 시비노오미는 자고 있을 것이다. 또 그 집문 앞에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을 놓치면 시비노오미를 모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고 즉시 군세를 모아서 시비노오미의 집을 에워싸고 재빨리 죽였다.

22) 천황은 이전에 아버지가 참살당하는 재난을 만나 도망쳤을 때에 그 말린 밥을 빼앗았던 이카이의 노인을 찾으려 하였다. 그를 찾아내어 불러들여 아스카가와와 강변에서 베어 죽이고 또 그 일족은 모두 무릎 근육을 잘랐다.

위의 인용은 진무천황 이후의 『古事記』 기록 중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용례들이다. 특히 이들 용례에 보이는 죽음은 죽임을 당한 예들로 용례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日本書紀』에도 그 해당 부분에 관한 기술이 보이는 예들이다.

물론 『古事記』에는 위의 인용 외에도 예를 들어 스이닌(垂仁)천황이 미치노우시노미코(美知能宇斯王)의 4명의 딸을 궁으로 맞아들였다가 언니 둘만 남기고 아래 동생 둘은 용모가 추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돌려보내진 마토노히메(円野比売)와 같이 “인근에 화제가 될 텐데 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²³⁾가 있다. 또 황위 계승자였던 가루노오오미코(輕太子)는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간의 상간의 금기를 깨고 가루노오오이라츠메(輕大郎女)와 사랑을 나눈 대가로 황위 계승에서도 밀려나 유배를 당하는데 가루노이라츠메는 남편 가루노미코를 뒤따라가 부부의 정을 나누고 동반 자살을 한다²⁴⁾는 가루노오오미코와 가루노오오이라츠메의 슬픈 사랑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동국 정벌에 나선 야마토다케루노미코토(倭建命)를 위해 해신의 분노를 달래는 제물을 자처해 바다에 뛰어들어 오토타치바나노히메(弟橘比売)의 죽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황권에 반역한 탓에 결국 죽음으로 내몰려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도 전해지는데 오시쿠마노미코(忍熊王)의 반란이야기가 그것이다. 츠아이(仲哀)천황이 일찍이 죽고 진구(神功)황후가 낳은 적자(후의 오진(応神)천황)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황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킨 오시쿠마노미코(忍熊王)와 장군 이사히노스쿠네(伊佐比宿禰)는 쫓기다 결국 함께 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스이닌천황의 명을 받아 도코요노쿠니(常世国)로 언제나 빛나는 나무 열매를 구하러 갔던 아메노히보코(天之日矛)의 자손 다지마모리(多遲麻毛理)가 굴을 구해 돌아왔으나 천황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어 그 열매를 묘 앞에 차려두고 통곡하다가 순사한 이야기도 전해진다.

또 아버지 게이코(景行)천황의 명을 받들어 서국 정벌에 이어 동국 정벌에 나섰던 야마토다케루는 모든 임무를 완수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꿈에도 그리던 야마토로 향하지만 귀환 도중에 그만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남기고 쓸

23) 『日本書紀』에는 스이닌 천황이 다니와노미치누시노미코의 다섯 자매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 장녀 히바스히메노미코토를 황후로 삼고 아래 세 자매를 비로 삼았으나 막내 다케노히메만은 추하다고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녀는 이를 수처로 여겨 스스로 가마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전하고 있다.

24) 『日本書紀』에 의하면 가루노오오이라츠메가 이요로 유배되고 가루노미코는 오오마에노스쿠네의 집에서 자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쓸히 죽어가는 이야기 등이 있다.

이렇게 『古事記』 중의 죽음의 용례 중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돌연사 내지는 자연사의 경우를 제외한 것이 위의 인용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인용 중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이카이의 노인에게 얽힌 마지막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古事記』 『日本書紀』가 함께 전하고 있는 전승이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문헌이 모두 전하는 이들 죽음의 용례 가운데 그 결과가 다른 것은 본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메도리노오오키미 이야기의 후일담뿐이라는 점이다. 『日本書紀』에는 없는 이 죽음의 이야기가 『古事記』에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古事記』는 이 죽음을 통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하 각각의 용례를 검토해 봄으로써 이러한 의문점에 다가서 보기로 하겠다.

먼저 용례 ①은 진무천황이 죽고 나자, 서자 다기시미미노미코토가 황후와 결혼하고 적출 소생의 세 황자를 죽이고 황위를 차지하려고 계획하지만 황후가 노래로 이 사실을 알려 모반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다기시미미노미코토는 가무누나카와미미노미코토에게 살해되는 이야기이다.

용례 ②는 천황과 백부의 황위 쟁탈 이야기로 용례 ①의 진무천황에 대한 다기시미미노미코토의 반역과 같은 종류의 이야기이다. 고시노쿠니에 파견되어 가던 중에 한 소녀의 노래를 듣고 수상히 여긴 오오비코노미코토는 되돌아와 스진천황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이를 통해 백부 다케하니아스비코노미코토가 반역심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된 천황은 오오비코노미코토에게 히코쿠니부쿠노미코토를 함께 보내 다케하니아스비코토를 치게 한다.

용례 ③도 스이닌천황의 종형제이자 황후 사호비메노미코토의 오빠이기도 한 사호비코노미코가 동생인 황후를 시켜 천황 암살을 도모한 이야기로 역시 반역 이야기에 속한다. 사호비메는 오빠에게 받은 단도로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에 든 천황의 목을 찌르려 하였지만 결국 감행하지 못하고 천황에게 눈물로 이 사실을 고함으로써 천황의 암살은 미수로 끝이 난다. 육친의 애정과 천황에 대한 사모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호비메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오빠를 미워하고 있으나 황후를 사랑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고 고백하는 천황의 애뜻한 사랑이 잘 묘사된 이야기이다. 그러나 황후를 되찾기 위한 천황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호비메는 스이닌천황에게 아들을 바치고 오빠 사호비코를 따라 죽고 만다.

용례 ④는 아버지 게이코천황으로부터 서쪽의 구마소 정벌의 명을 받아 파견된 소년 오우스노미코토가 여장을 하고 구마소다케루 형제를 처 야마토의 용맹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름 야마토다케루를 얻게 되는 유명한 장면이다. 『古事記』에 의하면 오우스노미코토는 식사자리에 나오지 않는 형 오우스노미코토를 잡아 죽이고 그 수족을 갈기갈기 찢어 거적에 싸서 버리는데 아버

지 게이코는 이런 “아들의 용맹하고 거친 성격을 두려워하여” 서쪽의 구마소 정벌을 명하게 된다²⁵⁾. 정벌을 구실로 추방을 당한 오우스노미코토는 야마토 타케루로 성장해 그 넘치는 힘으로 천황의 명을 받들어 일본전역에 질서 있는 천황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동서를 종횡무진한다. 그러나 자신은 결코 그러한 천황세계의 질서 안에 받아들여지는 일 없이 끝없는 평정의 길로 내몰리다가 마침내 지쳐 쓰러져가는 고독한 운명의 영웅이다.

용례 ⑤는 유아이천황이 구마소를 치기에 앞서 거문고를 타며 신의 계시를 청하자 신은 서방에 금은을 비롯한 여러 진귀한 보물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귀복시키겠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천황은 이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신이라고 의심까지 함으로써 신의 노여움을 사서 급사하게 된다. 즉 신의 저주에 의해 천황이 죽임을 당한 예라고 하겠다. 천황이라도 신탁을 어기면 죽음을 면치 못함을 말해 주는 이야기이다. 오진천황은 우지노와키이라츠코를 황위 계승자로 정한 후 세상을 떠나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황자 오오야마모리노미코토는 천황이 죽자 황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데 용례 ⑥이 그것이다. 우지노와키이라츠코는 우지노카와에서 갖은 책략을 써서 결국 오오야마모리노미코토를 무너뜨리게 된다. 황권을 둘러싼 이복형제의 싸움은 결국 동생 우지노와키이라츠코의 승리로 돌아가고 반역자 오오야마모리는 강물에 빠져 죽고 만다.

용례 ⑧과 ⑨는 이와노히메가 낳은 同腹형제 리츄(履中)천황과 스미노에노나카즈미코 사이에 일어난 황위쟁탈 이야기이다. 반란을 일으킨 스미노에노나카즈미코가 죽는 것은 미즈하와케노미코토의 계략에 의해서인데 미즈하와케는 스미노에의 측근 소바카리의 야심을 이용하여 주군 스미노에를 죽이면 대신(大臣)으로 삼겠다는 말로 소바카리를 꼬여 죽이게 했기 때문이다. 이 계략에 따라 소바카리는 스미노에가 변소에 들어갈 때를 틈타 그를 살해하는 것이 용례 ⑧이다. 그러나 자신이 모시고 있던 주군을 죽이는 것은 신하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미즈하와케노미코토는 스미노에노나카즈미코를 죽인 공은 보상하여 주군으로서의 자신의 도리는 다하되 소바카리는 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소바카리를 주살하는데 그것이 용례 ⑨이다.

용례 ⑩⑪⑫⑬⑭는 안코(安康)천황과 관련된 일련의 이야기이다. 이 모든 비극적 사건의 시작은 용례 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용례를 살펴

보자. 용례 ⑩에서 안코천황은 同母弟인 오오하츠세의 비(妃)로 오오쿠사카노미코의 여동생 와카쿠사카노미코를 맞이하고자 네노오미를 사자로 보낸다. 여동생을 오오하츠세의 아내로 삼고 싶다는 천황의 제의에 오오쿠사카는 지극히 정중하게 응대하고 있으나 네노오미는 천황에게 참언을 한다. 그러나 참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믿은 천황은 오오쿠사카를 죽이고 그의 아내까지 빼앗아 버린다. 용례 ⑪에서는 천황이 아버지 오오쿠사카노미코를 죽인 사실을 알게 된 일곱 살의 마요와노미코는 낮잠을 자고 있는 천황의 목을 치고 츠부라노오오미의 집으로 달아난다. 『古事記』 중에서 천황이 살해된 이야기는 이 안코천황이 유일한 예이다. 이 사건을 들은 오오하츠세노미코는 크게 분노하여 형 구로히코노미코와 시라히코노미코를 찾아가 보복을 꾀하려 한다. 그러나 사건의 모든 경위를 듣고도 두 황자가 태연하고 애매한 태도로 협력을 하지 않자 이에 화를 내고 차례차례 형들을 죽여 버리는데 그것이 용례 ⑫와 용례 ⑬이다. 이어 오오하츠세는 군사를 모아 마요와노미코가 달아난 츠부라노오오미의 집을 포위하고 공격한다. 츠부라노오오미는 오오하츠세에게 자신의 딸 가라히메를 바치지만 자신은 끝까지 마요와노미코를 비호하고 마요와노미코와 운명을 같이 한다. 결국 츠부라는 패배하여 마요와노미코를 죽이고 자신도 순사하는 장면이 용례 ⑭이다.

용례 ⑮도 황위계승 문제가 얽혀 있는 이야기로 오오하츠세와 이치노헤노오시하노미코와는 중형제 사이이다. 오오하츠세는 용례 ⑫의 구로히코와 용례 ⑬의 시라히코에 이어 이치노헤노오시하노미코까지 황위 계승상의 경쟁자를 하나씩 처치해 나간다. 마지막 남은 오시하노미코를 속여 사냥터로 데리고 나가 침으로써 오오하츠세는 영웅으로서 황위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천황을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유랴쿠(雄略)천황이다. 『日本書紀』 유랴쿠 전기에 의하면 안코천황이 오시하노미코에게 황위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이를 원망한 오오하츠세는 오시하노미코를 사냥에 데리고 가 속여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용례 ⑯은 유랴쿠의 손에 살해당한 이치노헤노오시하노미코의 두 아들 오케노미코토의 이야기이다. 난을 피해 하리마노쿠니에 숨어 말치기 소치기로 지내다가 발견된 형제는 숙모 이히토요노미코에 의해 궁으로 돌아오게 된다.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시비노오미와 우타가키에서 악담과 야유를 주고받던 오케노미코토(袁祁命)는 다음날 병사를 모아 시비노오미를 죽인다. 이어 용례 ⑰은 천황의 자리에 오른 오케노미코토(袁祁命)가 아버지 이치노헤노오시하노미코토가 살해당하고 유랴쿠에게 쫓기던 때에 해를 입힌 이카이의 노인을 죽이고 그 일족에게도 체형을 가하는 보복을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古事記』 중·하권의 등장인물의 죽음을 불러온 이유는 먼저 왕권에 대한 반역이나 왕권 실현(기여)을 방해한 결과라고 할 수

25) 야마토타케루가 동국 정벌에 나서게 된 것에 대해 『日本書紀』에는 아주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야마토타케루는 겨우 막 서방정벌을 마치고 돌아온 터라 피곤할 테니 동방정벌에는 형 오우스노미코토를 보내자는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천황은 오우스노미코토를 보내려 하지만 정작 오우스노미코토는 겁을 먹고 풀밭 속에 숨어 버려 결국 야마토타케루가 형 오우스노미코토를 대신하여 서방정벌에 이어 동국정벌에도 나서게 된 것으로 전한다.

있겠다. 따라서 죽음의 용례 역시 평정이나 반란분자를 진압하는 장면에서 보인다(단 용례 ⑤와 용례 ⑩은 보통 인간의 죽음이 아닌 천황의 죽음으로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신탁을 무시하고 의심한 추아이천황이나 신의 말을 듣기 위해 재계하고 몸을 정결히 해야 할 신성한 장소 가무도코에서 황후와 속삭이고 낮잠을 잔 안코가 죽은 것은 모두 신성을 모독한 것에 대한 신벌이었다고 보아 다른 용례들과는 구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古事記』에서 이들 죽음은 ‘死’나 ‘殺’과 ‘崩’ 같이 죽음을 의미하는 글자로 표현되는 경우와 혹은 ‘切(斬)’ ‘射’ 등의 살해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자를 사용하여 함축적으로 죽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²⁶⁾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용례 ⑫ ⑬과 같이 오오하츠세노미코가 형들을 죽이는 예도 있는데 이는 왕권에 기여하지 않는 자에 대한 분노에 의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란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왕권에 기여하지 않는 것도 광의의 반역 행위라고 해석되어 죽음을 당해도 마땅하다는 의식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용례라 하겠다.

이와 같이 『古事記』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을 염두에 두고 다시 본고의 출발점인 메도리노오오키미의 후일담(용례 ⑦)의 문제로 돌아와 『日本書紀』와는 달리 『古事記』의 오오다테노무라지가 사형에 처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日本書紀』에는 없는 이 죽음을 통해 『古事記』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있어 가장 참고가 될 만한 용례는 역시 용례 ⑧의 소바카리의 경우가 아닐까 생각된다. 즉, 왕권에 대한 반역을 피하다 살해당한 스미노에노나카즈미코일지언정 소바카리에게는 곁에서 모시던 주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소바카리는 사적인 야심에 의해 주군을 살해하고 그로 인해 자신 역시 살해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소바카리의 경우처럼 하야부사와케노미코와 메도리노오오키미의 죽음은 그들의 반역죄에 의한 것이었으나 오오다테노무라지의 행위는 역시 신하로서의 예의와 인도에 어긋난 죽을죄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古事記』의 오오다테노무라지는 『日本書紀』와 같이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소바카리의 운명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더욱이 루시앙 레비 브뤼²⁷⁾의 지적처럼 죽은 자와 장신구의 관계는 신비적인 의미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오다테노무라지에게 “자기 주군이 손에 끼었던 옥팔찌를 죽어서 아직 체온도 가시기 전에 벗겨다 제 아내에게 주다니” 라는 말과 함께 사형에 처한 황후 이와노히메의 노여움에도 수궁이 가는 바가 있다.

26) 坂口由佳, 「『古事記』における死の表現」, 古事記年報 43, 2001. 1

27) レヴィ・ブリュル(著), 山田 吉彦(翻訳), 『未開社会の思惟』, 岩波文庫, 1991. 3

과연 『古事記』는 『日本書紀』에는 없는 이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

니시미야(西宮一民) 씨는 『古事記』 중·하권의 구별은 천황의 존재 양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중권의 천황은 「神道的天皇像」, 하권의 천황은 「儒教的天皇像」이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하권에 있어서는 유교적 사고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술 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²⁸⁾

이와 같이 만일 『古事記』가 하권의 서두에 닌토쿠 천황을 통해 「儒教的天皇像」을 그리고자 했다면 그 황후에게도 그에 걸맞은 역할이 지워져 있다고 보아 마땅하지 않을까. 요컨대 『古事記』는 닌토쿠를 통해서 바람직한 「天皇像」을 그리고 그 황후 이와노히메를 통해서 이상적인 황후의 모습 즉, 「皇后像」과 함께 바람직한 「신하像」을 그리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면 자신을 믿고 찾아와 준 주군에 대한 도리와 의리를 다해 끝까지 마요와 노미코와 운명을 함께 한 용례 ⑭의 츠부라노오오미야말로 『古事記』가 말하는 바람직한 신하像일 것이다. 그러기에 소바카리나 오오다테노무라지는 죽음을 면치 못한 것이 아닐까.

오오다테노무라지에 대한 『古事記』의 단호한 사형집행에서도 신하로서의 도의적인 문제를 엄하게 묻고 있는 『古事記』의 일관된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이상, 『古事記』의 메도리노오오키미 이야기의 후일담에는 『日本書紀』의 기록과는 달리 오오다테노무라지의 죽음이 이야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古事記』가 『日本書紀』에는 없는 이 죽음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그를 위해 먼저 『古事記』 중·하권에 죽음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古事記』 중·하권의 등장인물의 죽음은 평정이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그들의 죽음을 불러온 이유는 왕권에 대한 반역이나 왕권 실현(기여)을 방해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古事記』 상권의 죽음(모두 9예)의 양상이 예를 들어 불의 신 가구츠치노카미와 오오게츠히메노카미와 같이 그 시체에서 신이나 음식물이 태어나고, 이복형들에게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오오나무지노카미는 보다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 ‘오오쿠니누시노카미’라 불리는 존재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古事記』 상권의 신의

28) 예를 들어 須貝美香, 「仁徳天皇聖帝伝承の形成—漢代儒教思想との関連から—」(『上代文學』上代文學學會 1992.11) 등

죽음은 어떤 형태로든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²⁹⁾ 점과 비교해 볼 때 『古事記』 중·하권에 나타난 죽음의 양상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古事記』 중·하권의 죽음의 양상과 함께 『古事記』가 하권의 서두에 닌토쿠 천황을 통해 「儒教的天皇像」 및 「황후像」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古事記』는 역시 자신의 주군에 대한 반역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오오다테노무라지의 죽음을 통해 도의적이고 바람직한 「신하像」을 제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종래의 연구처럼 반란 이야기로서의 메도리노오오키미나 질투의 화신 이와노히메 전승으로만 접근해서는 읽을 수 없는 『古事記』만의 주장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古事記』는 종종 대륙풍의 한문체 문장과 이념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권위 과시를 위해 편찬된 『日本書紀』와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렇게 보면 『古事記』가 얼마나 군신의 도의와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이념에 철저한 작품인지를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参考文献】

<전집류>

-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古事記』(1997) 小学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1996) 小学館

<단행본>

- 荻原千鶴(1998.1) 『日本古代の神話と文学』 塙書房
尾崎富義(1993) 「石之日壳の伝承の位相—記紀の比較を通して—」 『古事記研究大系 8 古事記の文芸性』 高科書店
川上順子(1995) 「古事記の中の大后像」 『古事記と女性祭祀伝承』 高科書店
坂口由佳(2001. 1), 「『古事記』における死の表現」, 古事記年報 43
溝口陸子(1975) 「仁徳天皇の後妃に関する説話について—その記紀における比較—」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古事記・日本書紀』 有精堂
吉井巖(1975.9) 「イワノヒメの物語」 『吉永登先生古希記念上代文学論集』
レヴィ・ブリュル(著)山田 吉彦(翻訳)(1991.3), 『未開社会の思惟』, 岩波文庫

<논문>

- 阿部寛子(1977.9) 「石之日壳の物語—一個の誕生—」 『調布学園女子短期大学紀要』 第 10号
阿部誠(1991.1) 「古事記・墨江中王反乱伝承について—その反正天皇即位前『記』としての構想—」 『古事記年報』 33
荻原千鶴(1982.11) 「女鳥王—説話の発展とその周辺—」 『国語と国文学』 59卷 11号
荻原千鶴(1987.2) 「女鳥王物語と春日氏后妃伝承の定着」 『日本古代の政治と文化』 吉川弘文館
須貝美香(1992.11) 「仁徳天皇聖帝伝承の形成—漢代儒教思想との関連から—」 『上代文学』 69号, 上代文学学会
滝口泰行(1980.11) 「墨江中津王の反乱物語とその周辺—その素材を中心として—」 『上代文学』 45号, 上代文学学会
谷口雅博(2007.5) 「謀反を知らせる歌—タケハニヤスの反乱(崇神記・紀)」 『日本文学』 56(5)
玉岡兼治(2001.3) 「上代文学における「死」の表記について—『日本書紀』を中の一—」 『聖カタリナ女子短期大学研究紀要』 34卷
寺川真知夫(1988.1) 「石之日壳の悲しみ」 『古事記年報』 第31号
中尾瑞樹(1998.1) 「『古事記』反乱物語試論—神武記「当芸志美美命反乱」条および崇神記「建波迹安王反乱」条をめぐって—」 『解釈』 44-7 通巻 520

29) 坂口由佳, 「『古事記』における死の表現」, 古事記年報 43, 2001. 1

富士原伸弘(1992.3) 「古事記にみえる石之日壳皇后像—八田若郎女との比較を中心に—」
『日本文学論究』51号
馬場小百合(2008.10) 「『古事記』 大山守命の反乱物語と宇遲能和紀郎子」 『国語と国
文学』85(10) (通号 1019)
森昌文(1982.3) 「神武記「タギシミミ反乱譚」考」 『古代研究』14
山崎正之(1987.10) 「仁徳「聖帝伝承」の位相」 『二松学舎創立百十周年記念論文集』

要旨

本論文は、『古事記』の女鳥王物語の後日譚には『日本書紀』の記録とは違って大楯連の死が語られていることに注目し、『古事記』が『日本書紀』には存在しない死を通して何を語ろうとしていかるかについて考察を行ったものである。

そのため、まず『古事記』中・下巻における死の様相について検討した。その結果、『古事記』中・下巻の登場人物の死は、平定や反乱を鎮圧する場面で現れており、その死の原因も王権への叛逆や王権実現(寄与)を妨げた結果であったことがわかった。これは『古事記』上巻の神の死が何らかの形で復活を前提としていることを考え合わせると、『古事記』中・下巻における死の様相の特徴といえる。

このような『古事記』中・下巻における死の様相とともに『古事記』が下巻の初頭をかざる仁徳天皇を通して「儒教的天皇像」及び「皇后像」を提示しようとしていた点を考慮に入れると、『古事記』はやはり自分の主君に対する叛逆行為をも辞さなかった大楯連の死を通し、道義的かつ望ましい「臣下像」を提示してい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られる。

『古事記』は、しばしば大陸風の漢文体文と理念に基づき、対外に権威を誇示すべく編纂された『日本書紀』とは異なっていることが強調されているが、こうしてみると、むしろ『古事記』のほうが君臣の道義と体面を重視する儒教的倫理に徹底していることが窺われて興味深い。

キーワード：古代の女性、古代の死、女鳥王、イワノヒメ、
八田若郎女、仁徳天皇、古事記

투 고 : 2008. 11. 30
1차 심사 : 2008. 12. 13
2차 심사 : 2008. 12. 27